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5분의 연속을 보냈습니다



김도창

- 천안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17년도 5급 공채 법무행정직렬 합격

I. 합격수기를 시작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즐겨 구독하던 『考試界』의 한 페이지에 제 이야기를 실을 수 있다 생각하니, 넘쳐나는 감정을 통제하여 담담히 글을 적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저히 분량을 줄일 자신이 없어 고시계 수기 담당자분께 미리 쓰고싶은만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쓸데없는 개인사나 감정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어설픈 수기지만 독자 여러분께서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이 수기를 읽는 목적은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경험을 배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는 여러분께 함부로 어떠한 길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원이나 강의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수험생활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제 경우에만 좋게 통용됐었던 방법을 여러분께서 합격하는 길이라 믿고 따르실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시게 될 저의 수험과정 및 공부방법은 그저 “이런 사람도 합격을 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도 합격할 수는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가벼이 읽어주시고, 10여 가지의 항목으로 정리한 [합격에 관하여] 부분은 주변 합격자들의 경험과 조언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을 모아 제 주변 고시생들을 위해 만든 것이

니 가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

II. 수험과정

1. 2009년 1월 ~ 2011년 2월, 3년의 사법시험 응시

서두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버지께서 사법시험을 꽤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여러 가지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꺾으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 느끼신 20년 가까이 좇아온 목표를 놓는 슬픔을 어떻게 문장으로 형용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괴로워하실 때 자식된 도리로서 위로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대신 이뤄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법대에 진학했지만, 활기찬 대학생활을 빙자한 방탕한 생활을 거쳐 2009년에야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2월의 사법시험까지 총 2년 반의 수험기간은 수험기간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놀기 좋은 신림동 고시촌의 환경에 저는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을 줄여나갔고, 도중에 같이 수험생활을 보내자며 고시촌에 들어온 친구와는 동네 PC방을 어찌나 다녀댔는지 나중엔 사장님께서 음료를 알아서 꺼내주실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습니다. 3년간 1차 합격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 2011년 5월 ~ 2013년 2월, 군대 입대 기간

남들보다 늦은 나이인데다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갑작스레 입대를 하

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 실패에 대해 자주 관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었나?’ ‘나라를 위해 보다 큰 일을 하고 싶다는 내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는 없을까?’ 마침 저는 부대에서 단독으로 인사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집단의 사법 업무와 행정 업무를 모두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강을 확립하는 사법보단 안정적인 운영체제 위에서 더 나은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제 적성에 걸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로스쿨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법시험에서 행정고시로 인생의 키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3. 2014년 8월 ~ 2017년 7월, 행정고시반 입반 후 2년

행정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제대 후 다시 1년을 놀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보내다 우연히 모교 고시반의 신입반원 모집용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까지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시반 입반을 결정하였고, 운 좋게도 15년 행정고시 1차에 바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 노력 없이 얻은 결실은 독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1차를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2년간량을 다시 놀게 되었습니다. 고시반 기숙사에서 공부하러 나가지 않고 항상 침대에만 붙어있으며 매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지요. 별점이 쌓여 퇴반위기에 놓이기도 한 16년 2차 시험의 최종 결과는 평균 42점, 법무행정

직렬 합격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두 과목은 아예 과락이었습니다. 기본 지식도 없이 본 행정학 3문의 정답을 우연히 맞춘 덕에 행정학 점수가 높아 겨우 평균 과락을 면한 수준이었습니다.

4. 2016년 8월 ~ 2017년 6월, 세 번째 시험

16년 7월 초였습니다. 2차 시험을 마치고 본가에 내려가자 부모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며 고생 많았다고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 9월에는 아버지께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오셨다가 아들 고생한 다며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래다드리는 길, 제 맞은편에 앉아 피곤함에 졸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너무도 지치고 나이들어 보였습니다. 문득 찬 물을 뒤집어쓴 듯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으나 평생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 고작 결심 한번으로 쉽게 시작될 리 없었습니다. 두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독서대 위의 책 페이지가 그대로인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기본서의 목차 및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옮겨 적는 식으로 글씨라도 써보기로 했습니다. 글씨를 깔끔하고 빠르게 쓰는 연습이 될 것이고, 당시 과목별로 무엇을 배우는지 체계조차 명확치 않았던 상태라 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날로 두께 5cm 짜리 스프링노트를 과목별로 사다가 행정법부터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고, 그렇게 늘어난 공부시간을 토대로 지식을 쌓아나갔습니다.

2017년 1차 시험은 다행히 자료해석 영역이 쉽게 나온 덕에 안정적인 합격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3월부터의 2차 시험 준비는 제대로 준비해보는 첫 3순환이다보니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게 잡고 이번엔 과락만 피하자는 생각으로 암기 및 사례 위주의 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악과 깡으로 시험일을 맞이하여 5일을 보냈습니다.

5. 2017년 9월, 2차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결과 발표 당일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 해에 두 과목 과락으로 평균 42점을 맞은 사람이 합격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시반 내의 어두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늘 하던 대로 저녁식사시간 무렵 혼자 학교 주변의 지하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다만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래방 안에서도 휴대폰을 꺼내놓긴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6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자가 오질 않았습니다. 6시 5분쯤 노래를 부르다 말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에서 아버지께 3년차의 불합격 통보를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올해도 안 된 것 같아요”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되지.” 눈물을 꼭 참은 채 1분여간의 통화를 마치자, 갑자기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3년차의 위로문자를 보내셨나 싶어 마음을 추스리고 화면을 보자 “2차 시험 합격을 축하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순간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 라며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멍청한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문자를 확인하고 친구에게 이 번호로 합격 문자가 오는 게 맞는지 확인한 후.. 그 후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

버지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저 됐어요!” 라고 5분 만에 불합격 취소통보를 한 후 평평 울며 달렸습니다(아버지께서 훗날 아들이 대체 방금 떨어졌다고 해놓고 새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떨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가 보다 걱정했다며 술회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왜 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사에 돌아가 빠르게 짐을 챙긴 후 열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방에서 뛰어나오셨고, 부자가 합쳐 했수로 수험기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2차 시험에 합격한 기쁨을 평평 울며 마주 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때 사진을 찍으셨는데, 나중에 보니 차마 어디 보여주지 못할 정도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지금 자버리면 이 모든 것이 꿈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6. 2017년 10월 ~ 2017년 11월, 면접준비 및 최종 발표

합격의 기쁨도 잠시, 한 달 후 있을 3차 면접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 고시반과 법무행정직렬 모임 두 군데에서 면접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면접에서 우수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의면접이나 토론 및 PT 연습 1회 1회를 모두 실천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3차 시험을 치르고 최종 발표까지 떨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지금도 11월 7일 이 날 만큼은 생생히 기억 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종교가 없기에 알고 있는 모든 신들께 제발 이 한관문만 마저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5시 59분, 아무런 문자가 오질 않았습니

다. 6시 정각, 친구에게 먼저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축하해’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인사혁신처에서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몇 번씩이나 틀리다가 국가고시센터에 겨우 로그인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0200356, 10200356. 제 번호가 법무행정 최종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날 밤 예전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함께 수험생활을 하던 그 친구가 저를 천안에 있는 본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네가 합격하면 집까지 가는 차의 운전은 꼭 자기가 직접 안전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을 남기더군요. 2차 합격 때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인지 이번엔 부모님도 저도 그리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30년에 걸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1. PSAT

(1) 총설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PSAT이 적성에 맞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방법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PSAT 성적을 올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낸 ‘보다 효율적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체득하는 법’, ‘스터디 운영법’ 등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직접 후배들에게 PSAT을 가르치며 전했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2) PSAT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세 과목 공통)

우선 기본서를 하나 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풀어 보며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익히고, 그 뒤엔 시간을 정

해 한 번 더 전체를 풀어본 후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PSAT 모의고사는 강사별로 문제의 기출 적합도가 크게 다르므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답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보통 학원 모의고사는 문제 정답지 맨 뒤에 수강생들의 평균과 문항별 정답률을 정리한 종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답체크 시 전체 정답률이 50%가 넘는 문제를 본인이 틀렸다면 반드시 오답 노트에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역으로 상위 10~20%의 정답률이 20% 이하인 문제를 틀렸다면 아예 틀린 원인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문제를 보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1시간 30분에 걸친 문제풀이 및 보통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는 검토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언어논리 (2017년 1차 시험 90.00점)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을 받았다면 언어논리는 (기출 기준으로) 누구나 8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의 독해 및 문제풀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80점이라는 선을 정한 것은 언어논리의 풀이 방법이 수능과 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부터 독해 실력과 스피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논리영역을 수능 언어영역과 같이 생각하여 모든 내용을 읽고 문단별로 주제찾기 하는 방식으로 풀면 90분 내에 40문제를 다 보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언어논리는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 읽는지’에 문제 풀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란 바로 보기 5개의 정오를 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보기가 해당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읽으면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본문을 다 읽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때론 보기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핵심 주제를 찾는 문제가 있기에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문제에 어떤 접근방법이 적합한지’ 문제를 보고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면 분명 상상 이상으로 문제풀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자료해석 (2017년 1차 시험 82.50점)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몬 수학을 조금만 더 열심히 풀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고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언어논리가 ‘빠르게 필요한 부분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자료해석은 ‘빠르게 필요한 계산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칙연산의 정확도와 속도가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의외로 적은 계산만으로 풀리는 문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칙연산이 약해서 비타민 암산연습을 구한 후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며 계산의 정확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노력만으로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니만큼 언어나 상항에서 높은 점수가 안 나올 경우 자료를 전략과목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5) 상황판단 (2017년 1차 시험 87.50)

상황판단은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을 분석해보면 보통 언어영역 유형(긴 본문을 읽고 정오를 고르는 유형)이 1/4, 자료해석 유형(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유형)이 1/4, 복합적인 풀이를 요하는 유형이 1/4, 끝으로 소위 말하는 퀴즈 유형이 1/4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황판단이 '퀴즈'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 보통 상황판단을 어려운 과목이라 여기고, 난해한 퀴즈의 기상천외한 풀이방법을 공부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상황판단 과목에 대해 조언할 때 '상황판단은 이 문제를 풀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목'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9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문제는 빠르게 포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빈틈없이 꼼꼼히 공부하는 성격일수록 이것을 못해 언어영역과 자료해석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에서는 60점대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판단 모의고사를 푸실 때 작성하고 "나는 오늘 무조건 8문제는 아예 읽지도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뒤의 8문제를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푸는 도중에 나오는 퀴즈나 난해한 계산문제를 아예 문제도 읽지 않은 채 버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계산 문제, 거리 계산 문제, 날짜 계산 문제를 버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조금이라도 계산 실수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모의고사를 풀며 본인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지 미리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2. 2차시험 과목

(1) 총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 2차 과목은 제 공부 방법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2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께선 학교 고시반의 지원을 받으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반드시 학원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면 보다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수의 등락은 현재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해 합격을 의심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자 따로 표기하였습니다(제 2016년의 수준은 각 교과서의 1회독, 그것도 정독이 아닌 통독 수준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세요.

둘째, 제가 읽은 모든 책은 2017년 당시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혹시 제 수기를 시간이 흐른 후 찾아 읽고 계신다면 꼭 한번 신림동 고시촌 서점가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법 과목 수험서가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행정고시 출제경향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시점에서 행정고시에 적합하였으나 훗날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셋째, 아래의 모든 과목은 중·고등학생 시절 영단어 암기를 위해 사용했던 고리형 단어 암기장을 별도로 만들어 암기를 병행하였습니다. 백지인 암기장 앞장엔 '신뢰보호원칙'이라 적고 뒷장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판례의 주요 문구를 적어 암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이고 유치한 방법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수시로 이 조그만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달달 외웠기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은 암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하 과목별로 제 공부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2) 행정법 (2016년 40.66점 → 2017년 56.00점)

행정법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과목이지만 법 과목 중 가장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16년 3순환 기간에 행정법 스터디를 한 달 했고, 17년 3순환 기간에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시반 내의 실력자들이 고맙게도 초보인저를 스터디에 넣어주어서 그 때 정말 많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학교에 법무행정 직렬이 따로 없어 민법을 위시한 타 법 과목의 스터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법 하나로 리걸 마인드를 형성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과목이기에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릴 수는 없으나, 학설-판례-검토-사안의 해결 중 사안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판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좋으니, 스스로 적시한 학설과 검토의 논리 흐름에 걸맞게 사안을 해결한다면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2017년 행정법 시험에서 절반 이상은 원본 판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험서는 정선균 선생님 저 [행정법 엑기스]를 중심으로 하여 학설 및 판례를 습득하였고, 박정훈선생님 저 [행정사례연습]을 가미하여 답안 작성 구조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엑기스 등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생길 경우 박균성 선생님 저 [행정법강의]를 발췌독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최종 한 달 동안 본 책은 [행정법 엑기스 연습]입니다. 저는 주로 사례집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3) 민법 (2016년 30.33점 과락 → 2017년 67.00점)

제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점수를 뺏기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에 대해선 다음 목차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법을 공부하며 습득한 리걸 마인드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법은 판례가 하도 많아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애초에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문 개수도 많아 실전에서 법전을 제대로 넘길 자신이 없어 중요한 몇 개의 조문은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 외우곤 했습니다. 판례 암기보단 주요 조문의 위치 및 요건 암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험서는 운동환 선생님 저 [민법의 맥]으로 기본을 다지고 (책에 있는 사례는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승수 선생님 저 [민법 사례연습]으로 사례를 연습하였습니다. 최종 한달 동안 본 책도 민법 사례연습입니다. 양이 좀 많은 감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이 책 덕분에 민법에서 고득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행정학 (2016년 59.00점 → 2017년 66.00점)

행정학은 PSAT처럼 제 적성에 맞았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체 행정학이 뭘 말하고자 하는 과목인지 모르겠다며, 뭘 공부하고 암기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으나 저는 역으로 “어차피 뭘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공부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16년엔 [재미있는 행정학]의 초반 50페이지지만 읽고 들어갔는데 우연히 3문을 찍은 것이 맞아 들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락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엔 재미있는 행정학을 총 5회독 하며 생소한 행정학 용어들을 저 나름대로 답안지에 현출하기 위해 요약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행정학은 아직 성장단계인 학문이라 용어의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자의 이름을 암기해 적는 것은 나의 행정학 지식을 채점하는 교수님께 괴력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암기한, 정확히 말하면 암기가 되어버린 학자의 이름이 Friedrich 입니다. 스터디를 함께 하던 가장 친한 동생이 '튀겨진 부자'라고 외우라 하더군요.

한 가지 더 신경썼던 것은 사례의 현출 방법입니다. 단순히 질문과 관련된 행정사례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서는 박경호 선생님의 [재미있는 행정학]을 메인으로 삼았고, 먼저 합격한 가까운 동생이 필기와 함께 물려준 [새 행정학]으로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법 (2016년 33.66점 과락 → 2017년 57.00점)

민사소송법은 연수원에 들어와 있는 지금까지도 가장 아쉬운 과목입니다. 공부시간이 제일 부족했던 과목이긴 하나, 2017년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부분만 골라 출제되었는데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득점의 이유는 사례의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공부량 탓에 판례 암기가 되어있지 않아 거의 모든 법 과목은 스스로의 논리 구조에 따라 해결하였는데, 민사소송법은 타 법에 비해 보다 조직화

된 해결을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의 흐름을 전개하지 못할 경우 논의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실전에서 답안을 쓰면서도 “내가 지금 헛소리를 쓰고 있구나.”하고 느낄 정도였고, 한 페이지 전체를 수정테이프로 그어가며 풀었으니 어찌보면 감사해야할 점수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께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은 일반행정직렬에서의 경제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행직에서 경제학 고득점을 노려 합격하듯 법무행정직렬에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고득점을 노려야 합격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로 민사소송법에서 70점대를 거둔 사람을 꽤 보았습니다).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점수의 편차가 크고, 확실한 암기와 함께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기에 전략과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서는 이창한 선생님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사례 민사소송법]에 기본서의 내용을 단권화 하여 최종까지 읽었습니다. [진도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핸드북] 또한 행정고시 기출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곁에 두고 참고하였습니다.

(6) 상법 (선택과목, 만점 50점 기준 2016년 27.00점 → 2017년 33.33점)

상법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문의 적시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른 법 과목도 조문을 꼭 적시하는 것이 좋으나, 상법은 조문 자체가 그대로 문제의 풀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답안에 정확한 조문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상법 조문을 포스트잇에 여러 개 적어 대충 몇 번쯤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처음엔 양이 방대하여 건드리기 싫어지는 선택과목이나, 민법을 잘 공부했다면 통독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아예 지식이 없더라도 법전이 있다면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과목이기에 선택과목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책이 두꺼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험서는 김혁봉 선생님의 [상법신강]을 기본서로 삼아 [상법사례연습]에 단권화하였습니다. 상법사례연습은 그 방대한 상법의 분량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사례집이나, 상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 내용은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단권화된 상법사례연습 한 권만을 읽고 응시하였습니다.

3. 3차시험(면접시험)

(1) 들어가며

실전처럼 임했던 연습 덕분인지, 아니면 주변에 비해 많은 나이와 여차피 꼴찌로 떨어질 거라 생각하며 반쯤 포기한 멘탈 탓이었는지 3차 면접 당일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임했습니다. 공무원 면접이라면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답변이 필요했을 법도 한데 저는 면접관 분들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편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듯 임했습니다. 혹시 면접으로 긴장이 많이 되신다면 저처럼 생각해보세요. 이하는 면대면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면접을 길게 풀어쓸 수가 없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요소만 적어보겠습니다.

(2) 집단토론

집단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하는 주제로 충분한 시간조차 받지 못한 비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듣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할 때 부드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목소리 톤과

속도를 유지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힘주어 이야기 하는 태도에 보다 신경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미소를 유지한 채 중간 중간 공감가는 부분에서 작게 끄덕이며 경청의 자세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집단토론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토론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3) PT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글씨와 형식도 신경써야 하지만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관분들께선 실무에서 보고서를 접하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대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적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있었는데, 의외로 전체 면접과정 중 가장 많이 문제삼으신 부분이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4) 인성 및 직무역량

솔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하시기에 거짓된 내용을 적는다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됩니다. 적으면서도 스스로 '왜' 그렇게 적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역량 파트에선 딜레마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는데, 자신이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는 신입 사무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풀면 편합니다. 갈등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자칫 면접관들께 독단적이라는 인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상대방이 강한 스파이크성 질문을 하도록 끌어주는 토스라 생각하고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V. 자주 받은 질문 및 답변

1. 들어가며

이하는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강의에 관하여

저는 단 한 번도 강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시반에서 공동구매하여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3순환 강의에도 첫날만 출석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천성 탓에 저에게는 강의가 시간낭비로만 여겨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교재가 워낙 수험적합적으로 나오다보니 더욱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의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창시절부터 선생님께 배우고 보고 듣는 방식의 학습에 익숙하거나. 둘째, 처음 접하는 과목에서 수험용 강약조절, 즉 보다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싶을 때입니다.

다만 저는 학원에서 배부되는 3순환 문제 및 자료는 반드시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친한 지인이 행시에 처음 진입한다고 하면 반드시 학원을 다니거나 별도로 강의를 구매해 듣는 것을 추천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모든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것이, 즉 학원 전문가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3. 스터디에 관하여

스터디는 3차 준비 > 2차 준비 > (넘을 수 없는 벽) > 1차 준비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면접은 면대면으로 진행되는 시험이기에 스터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고, 2차 준비시에는 다른 사람의 답안 중 간결하고 좋은 부분을 발췌하여 습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1차 준비시의 스터디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맞춰 다 같이 푸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 질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1차 스터디를 하신다면 꼭 피해야 할 행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오답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며 굳이 토론에 붙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파악해야지,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설득하려 드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같이 모여서 문제만 풀고, 고수와 함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깔끔한 스터디라면 권장하고 싶습니다.

4. 서브노트에 관하여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요즘은 책이 워낙 잘 정리되어 나와 있는 만큼 별도로 자신만의 서브노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쌓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성함을 곁고 쓰신 책이 존재하고, 그 책의 양이 많을까 요약서까지 따로 내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5. 답안지 작성 분량에 관하여

행정학과 행정법은 스터디를 꾸려 3순환 기간 중 하루 50점씩 작성하였습니다. 답안 쓰는 법을 제대로 몰랐기에 제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민법과 상법은 답안지를 인

생에서 총 세 번 적어보았는데, 그게 2015년 2차, 2016년 2차, 합격하던 2017년 2차 시험장에서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그래도 학교 답안 채점을 통해 10번 정도는 적어본 것 같습니다.

법과목이 많은 직렬은 그 과목들 중 하나만 골라 답안 연습을 하면 나머지 과목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도 길러지고, 학설-판례-검토-사안해결로 이어지는 기본구조가 같기에 별도로 써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법이나 민법 중 하나를 골라 하루 50~100점씩 시간을 내 답안을 적어 보았다면, 다른 과목의 공부시간엔 굳이 답안을 매일 적지 않고 그 시간에 암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집중도에 관하여

수험생이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인 집중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최대치가 늘어나지만, 단시간에 지나치게 혹사할 경우 부상 등으로 오히려 퇴화하게 됩니다. 저는 굳이 스탱워치 등으로 그날의 공부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최대한 유지될 때 까지 책을 읽다가, 잠깐 잘 읽히지 않는다 싶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겨 읽어보고, 그 부분이 잘 읽힌다 싶으면 다시 집중이 되었다는 이야기니 앞부분으로 돌아와 읽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다음 장으로 넘겼을 때 읽히지 않을 때는 제가 집중력이라는 '소모자원'을 다 써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 쉬었습니다. 20~30분 정도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라도 하나 사 먹으며 산책을 하거나 친한 고시반 동생과 잡담하며 휴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잠시 후 집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순환 기간을 제외하곤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7. 공부시간에 관하여

3순환 기간엔 2-1의 사이클을 지키려 했습니다. 두 시간 공부 - 한 시간 휴식입니다. 오전 9시~12시의 3시간을 제외하고는 13시~15시, 16시~18시, 19시~21시, 22시~24시로 두 시간씩 공부하는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2차 시험시간이 두 시간이니, 두 시간동안 집중을 유지하는 연습을 평소에도 해서 바이오리듬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3순환기간이라는 3~4개월 남짓한 기간 중 다 읽어야 하는 분량이 있을 뿐입니다. 해당 기간 중 5과목을 다 보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할지 스스로 역산해서 매일의 공부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8. 암기에 관하여

법과목은 두문자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단어장을 이용하여 스스로 두문자를 만들어 외웠습니다. 의외로 과목별로 두문자는 100개도 나오지 않는 반면, 그것이 확실히 암기만 된다면 답안지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시간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및 자기 전 두 번의 씻는 시간, 식사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암기 카드를 한 장씩 넘겨가며 자신이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시험해보았습니다. 뇌는 반복하여, 그리고 힘들여 생각해낼수록 활성화되리라 믿고 '떠올리기' 훈련을 매일 한 것이다.

9. 휴식에 관하여

잘 쉬는 것은 공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공부시간을 잘 계획하는 것만큼 휴식시간에 다시

공부할 체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장하는 휴식법과 피해야 할 휴식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권장하는 휴식법으로 첫째, 산책입니다. 머리를 텅 비우는 산책도 좋고 떠올리기를 병행하는 산책도 좋습니다. 둘째, 낮잠입니다. 야간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오후의 낮잠은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셋째, 음악감상입니다. 후크송과 중독송 등을 피해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나 클래식이 좋습니다. 넷째, 가벼운 활동입니다. 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 좋습니다.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맛있는 영양을 챙기는 것입니다. 저는 잡채와 메추리알 조림을 좋아하여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피해야 할 휴식법으로 첫째, 스마트폰입니다. 활자로 지친 머리를 활자로 휴식하려는 격입니다. 눈의 피로도 가중됩니다. 둘째, 게임입니다. 한 두판만 할 수 있고, 저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성격이라면 괜찮습니다. 셋째, 연애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연인과 데이트를 나갔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고시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다 저주고 참아주는 타입이 아니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술입니다. 주 1회의 가벼운 수준은 나쁘지 않으나, 매일 캔맥주 등을 찾는 습관이 들었다면 끊어야 할 것입니다. 피로해질 뿐더러 몸이 무거워져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가까운 지인은 고시 시작 전 70대였던 몸무게가 잦은 캔맥주 탓에 현재 90키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0. 운동에 관하여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3순환 기간에는 운동할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에 미리 7~12월 기간 중 꼭 체력단련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 중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중에서도 인상깊었던 명언은 ‘행시는 5과목이 아니라 6과목’이라는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과목의 이름이 바로 ‘체력’입니다. 저는 이 명언을 들은 그 날 즉시 교내 헬스장 3개월을 등록했으나 그 기간 중 단 3번 출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원활한 공유와 학교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그 여과로 3순환 기간 및 면접 준비 기간에 체력이 부족하여 크게 낭패를 보아야 했습니다.

11. 멘탈 관리에 관하여

수험기간 중 제 자신이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에 어머니께서 조금 일찍 은퇴하시는 것을 상담하셨을 때입니다. 남들은 벌써 취직해서 집에 용돈도 드린다는 나이에 고시생이라 차마 어머니께 은퇴하고 편히 쉬시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2차 민법시험 전 날입니다. 책에 분명히 밑줄도 몇 번씩 그어져 있고, 별표도 쳐져 있고, 심지어 저만의 주석도 달려있는 등한 두 번 본 내용이 아닌 데도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12시간 후가 시험인데 너무나 막막했고, 허송세월한 것이 아쉬웠고, 스스로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멘탈 관리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스칠 일에 다른 누군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금방 잊을 일을 나는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기도 합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마음의 형태가 있는 만큼 강제로 수도승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하는 고시생들은 그 섬세함이 더할 것입니다.

멘탈 관리 방법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

은 대화입니다. 자신이 정말 독한 성격이 아니라면, 누군가 한 명 째는 자기를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선후배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성실히 대하는 것 또한 스스로의 멘탈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내가 힘들 때만 찾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함부로 대해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변 합격자들을 관찰해볼 때, 예민한 성격보단 조금 덤벼거리더라도 무뎠던 성격의 부류가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의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의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운에 대하여

*이 부분은 12가지 항목 중 가장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운칠기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합격은 운이 70%, 실력 및 노력이 30%를 차지한다는 시험가의 격언입니다. 그런데 제 합격은 운이 90%, 어쩌면 그 이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고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상할 정도로 남을 도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딱히 제가 착하거나 무슨 봉사심이 특별해서 한 행동들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나이가 많은 고시생이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작은 선행으로 남을 돕거나 뭔가를 나눌 때 제 자신이 조금이나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2차 시험 도중엔 옆 자리에

앉은 분의 볼펜심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여분의 펜이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말에 세 개씩 들고 다니던 제 펜을 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엔 그 분이 원래는 더 굵은 펜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따로 사두기도 했지요. 주변 친구들은 한명이라도 경쟁자를 줄여야 네 합격 확률이 올라갈 텐데 왜 시키지도 않은 오지랖을 부리는 것이냐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저 곤란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런 식으로 남을 돕는 습관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쟁자는 3차 면접시험장에서도 옆자리에 앉게 되더니, 함께 최종 합격하여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9월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소한 것에서 부터 계속 운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고자 마음먹은 일은 거의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달 2차 시험 합격발표가 났습니다. 10월 면접에선 집단토론 주제로 실제 정책의 수혜자와 바로 전날 깊이 대화했던 것이 나오는가 하면, 인성면접에선 군대에서 상담 도우미로 이등병들을 돕던 것을 언급할 수 있는 저성과자 관련 경험이 출제되었습니다.

착하게 사니 복이 찾아오더라는 전래동화 같은 미신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남을 배려하려고 특별히 노력하게 된 이후로 운이 크게 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혹시 시험 때마다 약간의 운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벼운 선행을 시작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분명 미신입니다만 이는 제 경우처럼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V. 기나긴 글을 마치며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 잔뜩 욕심을 부렸더니 누군가 끝까지 읽어주시기는 할까 싶은 부담스러운 분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수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신을 믿어라, 합격을 믿어라. 그러나 막상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야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지만 했는걸요. 저도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법 시험 전날이 제일 그랬지요. 사실 거의 포기할 뻔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느니, 그냥 이 시점에서 손 놓고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혼자 소리없이 올라가 손에 들고 있던 민법 사례연습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연히 맨 첫 장이 펼쳐졌지요. 열심히 책을 써주신 선생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맨 첫 장에 있는 저자의 말 같은 건 잘 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저자의 말 부분이 펼쳐졌고, 눈에 마지막 문단의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5분의 연속을 보냈습니다.”

이미 합격하고 성공을 거둬 책까지 쓰는 사람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 감흥을 못 느낄 문장일 수도 있으나, 그 당시의 저에겐 갑자기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기분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불안에 떨며 이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그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12시간이 짧게 느껴졌지만 5번 읽어서 모르면 10번 읽으면 되고, 당장 지금 본 부분에서 내일 시험

이 출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올면서 본, 포기할 뻔한, 다섯 번 밑줄을 그어도 잊어버려서 전날까지도 봐야했던 부분에서 다음날 민법 2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저 문장으로 겪었듯, 이 긴 글의 어느 한 구석에도 누군가를 위한 버팀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나 적었으니 이제 남은 작은 공간은 저를 위해 써도 괜찮겠지요? 다른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보니 마무리엔 고마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였는데, 저는 하도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빼먹어 버릴까 봐 불안하여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원해주신 부모님께만 마음을 전하며 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없이 놀던 아들 녀석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촌 한 구석에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던 저를 항상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두분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어가신 치성의 힘을 아들이 받아, 아버지께서 꾸시던 꿈을 대신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선 열한 페이지보다 이 짧은 글을 적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벅찬 마음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나 우리 옛날에 같이 보던 『考試界』에 수기 썼어요!”